

데스크 시각

무너진 공교육,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장필수 사회부장

몇 년 전 광주 유명 공립 고등학교 동창 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교장은 재학생들의 대학 진학 결과에 대해 보고하면서 무겁게 입을 뗐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우리 학교가 드디어 올해 서울대에 한 명도 입학시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마친 교장은 고개를 숙였고 동창회에 모인 쟁쟁한(?) 선배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이 학교는 고교 평준화 이전까지만 해도 시험을 치러 입학하던 곳으로 전국적인 명문고였다.

2년 전, 광주 시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모 사립여고가 화제가 올랐다. 잘 나가는 일반계 사립여고도 한 해에 서울대 합격생을 3명 이상 배출하기 힘들다 평범했던 이 학교에서 8명이나 입학시켰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6명을 서울대에 보내

신흥 명문고로 부상했다. 자연스럽게 이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배정받은 학생들은 로또에 당첨된 듯 기뻐했다.

학부모 배신한 사립학교

그리고 1년, 경찰이 발표한 이 여고의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학교 측에서 1학년 때부터 시험 성적 상위 10여 명을 골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특별관리하는 등 모든 것을 상위 1%의 학생들을 위해 지원했다. 이른바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진학을 위해 생기부를 조작했고 1등급 학생이 2등급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성적 조작을 시도했다. 저학력 학생에게 쓰도록 교육청에서 준 예산 수천만 원까지 상위 1%의 학생들의 교육비로 전용했다.

신흥 명문고로 뜬 이면에는 교장의 지시로 이뤄진 학교 측의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생기부는 차별장부’, ‘한 번 1등급은 영원한 1등급’이라는 성적 지상주의 입시교육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문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능을 앞둔 광주 지역 고교생 대다수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하필 수사 결과가 수시모집을 앞둔 시점에 발표돼 광주 학생들의 이미지 추락은 불을 보듯 뻔했다. 생기부 조작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대학들이 광주 학생에 대해 갖는 선입견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학교에 배정됐다고 좋아했던 학생과 학부모는 요즘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 일찌감치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비해 왔는데 문제가 터져 아예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이번 사태는 사립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다.

광주 지역 사립학교의 배신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 7억 원을 받은 모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 사들 친인척이 구속됐다. 이들은 교사 채용을 대가로 1인당 1억5000만 원까지 받아 챙겼다. 재단 법인실장의 집을 뒤져 보니 18억 원 상당의 금품이 발견되기도 했다.

부조리 근절 해법은 없다

이런 사립학교들이 재단에 내고 있는 법정 전입금은 쥐꼬리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11곳에 달했고 채용 비리로 물

의를 빚은 사학은 의무액의 1.8%인 300만 원밖에 내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립학교의 부조리를 근절할 방법은 없을까. 결국 광주시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무너진 공교육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명문대 진학이 어렵다고 학부모들이 꺼리는 공립학교를 명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사립학교를 채찍질해 올바른 길로 유도하는 것이다.

공립학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교사들부터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때 학생들의 학력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차별 교육은 이뤄지지 않는지, 돈은 제대로 쓰이는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생기부 조작 사건을 보면서 학부모들은 사립학교가 성적 ‘금수저’(상위 1%)만을 위한 학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공립학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장항구 교육감시대 6년, 광주교육의 현주소인데 이제 해법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bungy@kwangju.co.kr

은펜클럽



김병인 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7월 한·미 양국이 정식으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력하고 결연한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시했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한국 내 사드 배치는 점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고 중국의 국가 전략 안전에 위중한 손해를 끼친다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사드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동북아정세의 균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중관계 위협하는 사드

중국과 러시아는 아마 상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일보이고, 중국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큰 작용을 할 것이다. 또 극동 러시아의 군사력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의 중요한 조절자라고 주장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중관계를 악화시키고 되보할 것이다. 한국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상충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중국은 사드 자체의 기술적인 면을 고려하면 북한의 방어작용이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의 주장처럼 한국을 공격한다면 사드는 별 효과가 없다. 지적인 한국에 탄도미사일을 쏘기 보다는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공격에 사드는 별 효과가 없다. 이 점은 각국의 여러 군사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한국의 이번 사드 배치는 한·중관계를 크게 악화할 것이다. 외교방면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도 영향이 클 것이다. 민간 교류 부분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중국 내 반한 감

정도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한·중간의 협조도 금이 가고 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비교적 성실히 진행해 왔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의견이 갈리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느슨해진 게 문제다. 한숨을 돌리게 된 북한은 이 틈을 타 중국의 방조 아래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제5차 핵실험까지 실시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한중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도 영향을 받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사드가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가깝게 배치된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엑스밴드 레이더 전자파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 엑스밴드 레이더의 효능은 거대하지만 상당한 거리 내에 있는 주변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중 관계는 악화 일로에 있다. 정치, 경제, 외교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교류도 영향을 받고 있다. 대구의 치맥페스티벌에 청다오시의 불참가와 내년 청다오 세계맥주 축제의 대규모 초청 취소도 일정 부분 사드와 연관이 있다. 중국에서는 민간 부분의 교류도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

만약 사드가 배치된다면 이후에 가해질 중국의 제재는 더욱 가혹할 것이다. 당장 우선적으로 사드가 배치된 지역 주민의 중국 비자 발급에 제재를 가할 것이고 이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의 중국 수출이 막힐 것이 예상된다.

중국 요우커의 한국 방문도 급격히 줄 것이고 점진적으로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수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수출로 먹고 산다는 한국이 전체 수출의 약 3분지 1을 차지하는 중국과 군사적인 마찰로 인해 무역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 경제적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한·중관계의 악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 이상의 악화는 막아야 한다. 서로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서 지금이라도 무엇이 국익을 위한 최선인지 정부가 나서서 현명한 대책을 세우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은펜클럽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광주시와 몽골의 아름다운 교류를 바란다

올에는 따뜻하다. 필자는 1996년부터 몽골에서 봉사활동과 몽골대학에서 강의를 해왔는데 몽골을 감성적으로 바라보거나 단편적인 실리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말하고 싶다. 몽골이 가진 풍부한 자원과 넓은 국토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은 몽골 미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인종, 언어, 문화의 동질성에 있어서 가장 가깝고 친근한 우리와 몽골이 서로 손잡고 활발한 교류를 이룬다면 다시 한 번 세계국가 건설을 꿈꾸는 몽골과 세계로 도약하려는 우리에게 동반상승의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본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해서 일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울란바타르대학교, 몽골국제대학교, 후레정보통신대학교 등이 한국인에 의해 세워져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연세전선병원, 에바다치과, 송도병원, 아가페병원 등이 한국인에 의해 세워져 고급진료를 했거나 현재도 진행 중이며 그 밖에도 한·몽 유적발굴단 활동, 사막 방치회 활동 등 많은 교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가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활발한 교류를 위하여 몽골을

첫 공식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고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우리고장 광주는 탁월한 특징과 문화적 장점이 많다. 민주화 및 인권도시, 문화와 교육도시, 탁월한 맛의 도시 등 이런 장점들은 몽골인의 호감을 살만하다. 교육열이 뛰어난 몽골인 대학생 상당수가 유학 와서 광주에서 교육을 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다. 광주의 우수한 대학들이 몽골어로 된 학교설명을 만들어 홍보하고 학교에 쉽게 접근방법(입학·등록)을 알리고 일정한 장학혜택이 주어진다면 유학생들이 늘려갈 것이다.

몽골인은 일반 하는 일별레들이 아니다. 여유와 씩을 아는 사람들이기 광주시 내와 인근의 훌륭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와 전문여행사가 있고, 몽골에서 광주시 무안공항으로 부정기편 직항편이 가 마련된다면 아마 관광객들도 몰려 올 것이다.

2~4년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온 근로자들도 있지만 여전히 비자받기가 어려워 포기하거나 기다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짧은 기간 비자라도 좀 더 쉽게 받고 올 수 있다면 광주를 찾아오는 인원은 달라질 것이다.

이미 불임치료를 위해 광주시내 CL병원 등에 찾아와 치료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더 많은 의료홍보가 필요하다. 몽골은 이제 심장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 의료수준이 향상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간단한 수술도 받지 못해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광주시가 1년에 몇 명이라도 선별해서 초청해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 고마움 때문에 땅은 넓지만 인구가 작은 나라 몽골의 구석 구석에 광주에 대한 소문이 빛처럼 퍼져 날 것 같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큰 도시와의 교류(MOU)보다는 향후 모든 분야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지방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광주와 호남지역에 온 다문화 몽골인의 숫자(광주시 254명, 호남지역 1563명)가 적지 않다. 이들의 지역적응을 위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 결혼상담 등의 도움과 나담축제와 같은 그들의 문화행사에도 관심과 협력·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오랜 세월 헤어졌다 다시 만난 형제와 같은 친근한 이웃, 아름다운 나라 몽골과 우리의 아름다운 교류가 더 많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社說

수서발 고속철도 전라선 증편을 촉구한다

오는 11월이면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운행을 시작한다.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주)SR이 운영하는 세 고속철은 시속 300km대로 빠르게 달릴 수 있어 SRT(Super Rapid Train)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수서~목포를 1시간 50분, 수서~부산을 2시간 10분 만에 주파할 수 있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게 된다.

하지만 SRT는 최근 새롭게 관광·산업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는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을 연결하는 전라선(용산~여수)은 운행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가 경부선(34회)과 호남선(18회)으로 허가를 국한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정부와 시민의 경계 활성화 방침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현재 KTX는 편도 기준으로 1일 경부선 74회, 호남선 24회, 전라선은 10회를 운행 중이다. 운행 간격은 경부선 15분, 호남선은 27분인 반면 전라선은 96분인데 SRT가 개통되

면 경부선은 108회, 호남선은 42회로, 노선별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전라선 총차지인 여수는 2012년 엑스포 개최로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정월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생태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순천과 함께 두 도시는 전남 동부권 경제의 핵심이다. 또한 며칠간 여수 경도에 대규모 레저단지가 들어서면 ‘유커’(중국인 관광객) 방문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인프라를 크게 늘려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는 정부의 단견이 아쉬울 따름이다.

보다 못해 국민의 당 박지원·안철수·정동영 의원 등이 SRT 전라선 허가와 KTX 호남고속철 증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앞서 SRT 전라선 운행과 호남고속철 증편은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절실하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자치구 간 경계 조정 구별 특성 고려해야

광주의 현재 인구수는 150만 명에 조금 못 미친다. 지난해 광주시 통계연보에 나타난 구별 인구를 보면 북구가 45만1천936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광산구가 40만6천74명, 서구 31만1천985명, 남구 22만1천120명 순이다. 동구는 10만1천833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처럼 인구수가 구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선거 때만 되면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4·13 총선 전에는 국회의원 8석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동구와 남구, 북구 간·을 지역이 재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때마침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옛 그제 광주시의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 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 박춘수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선거를 앞둔 인위적 선거구 획

정은 표심을 왜곡하고 주민의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인구만을 고려한 다른 지역의 통합으로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되며 자치구별 역사와 특성을 고려한 경계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승용 전남대 연구교수는 자치구 간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인사로 구간 경계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행정구의 경계를 일치시켜야 하는 논리적 근거는 미약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처럼 이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경계 조정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경계 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한데 모아졌다. 앞으로 지역 각 불균형 해소, 주민 편의 제공, 국회의원 정수 유지 등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

無等鼓

추석 연휴, 쏟아지던 비가 멈췄다. 비 온 뒤끝 서늘한 바람 사이로 가을 냄새가 나던 날, 가족과 함께 광주 동명동을 찾았다. 연인·친구·가족끼리 참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거리를 걷는다.

동명동은 요즘 뜨는 곳이다. 개성 만점 카페와 빵집, 음식점 등이 즐비하다. 문화 공간이 좁적은 것이 아쉽긴 한데 동명동 인근으로 ‘파종모종’, ‘검은 책방’ 등이 모여 있어 조금만 발품을 팔면 들

명의 건물, 똑같은 메뉴의 길거리 음식 가게 때문이었을 것이다. 한복 입고 사진 찍는 게 인기가 보니 한복 대여점만 50여 개에 달한다. ‘봉어빵 짝이 내듯’ 똑같은 풍경들이다. 컵모 등 수십 곳의 탈 것 가게들도 여색했다. 편히 구경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한옥’은 ‘느림의 대명사’ 아니던가.

카페에서 만난 주민이 말했다. “이러다 사람 발길 끊기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나도 한옥마을이 ‘지속 가능한 문

동명동과 양림동

이 새겨야 할 부분이다. 행여 자치단체장이나 사업 주체가 ‘보여 주기 식’ 외연 확장에만 치중한다면 두 곳도 물결성의 합정에 빠질 수 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6명이서 동명동 나들이를 하는 중이다. 점심을 먹고 새로운 공간을 찾는다. 다행히 아직은 눈살이 찌푸러지기보다는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재미난 장소를 찾는 즐거움이 더 크다. 소중한 문화 자산을 만들어 가는 건 행정기관과 업주와 이용객 모두다. 정말, ‘훅 가는 건 순간’일 터.

반면 교사(反面教師) 동명동과 양림동은 ‘헤르츠도’ ‘핫 플레이스’다. 양림동은 문화적 색채가 좀 더 강하다. 인기 만점 한희원미술관 앞에는 공방이 들어설 재비를 하고 있다. 펠런마을에는 ‘어린왕자’를 그리는 정감임 작가 작업실이 있다.

이번에 동명동을 둘러볼 땐 좀 다른 기분이었다. 취재자 전주에 들렀다 찾은 한옥마을 때문이다. 물론 한옥마을은 여전히 잘 나간다. 지난해만 600만 명이 다녀갔다고. 내가 방문한 금요일도 사람이 제법 많았다. 한데 뭔가 아쉬웠다. 양옥에 기와만 올려놓은 국적 불

이 새겨야 할 부분이다. 행여 자치단체장이나 사업 주체가 ‘보여 주기 식’ 외연 확장에만 치중한다면 두 곳도 물결성의 합정에 빠질 수 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6명이서 동명동 나들이를 하는 중이다. 점심을 먹고 새로운 공간을 찾는다. 다행히 아직은 눈살이 찌푸러지기보다는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재미난 장소를 찾는 즐거움이 더 크다. 소중한 문화 자산을 만들어 가는 건 행정기관과 업주와 이용객 모두다. 정말, ‘훅 가는 건 순간’일 터.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기 고



최병효 광신대 겸임교수·호남몽골공동체 자문위원

바다는 없지만 바다만큼이나 광활한 대초원이 펼쳐지고 산언덕에 올라 머리 위로 손을 높이 올리면 별 몇 개는 잡힐 것 같은 여름 밤하늘의 찬란한 별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몽골이다.

워낙 큰 땅을 가진 나라로 영하 40도 이하로 내려가 거대한 냉장고로 변하는 겨울은 너무 길고 짧지만 여름이 오면 대지는 온통 눈부신 녹색의 땅으로 변하는데 자연이 만들어내는 색채는 너무나 아름답다. 무서운 추위와 아름답고 멋진 계절이 공존하는 나라다. 복잡한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 아직도 순박한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사는 집인 게르는 유목생활이 만들어낸 몽골인의 지혜가 결집된 최고의 주거형태로 이동과 정착을 위해 분해와 조립이 쉽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details.